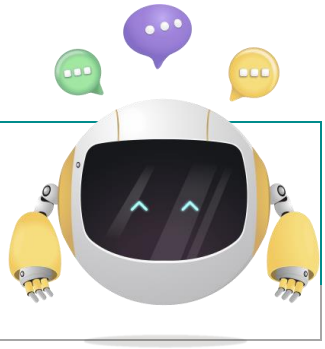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1.30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오픈AI, 최대 1,000억달러 '빅테크 연합' 초대형 투자 라운드 추진

AI 산업

- 오픈AI가 AI 수요 급증에 따른 컴퓨팅 비용 감당을 위해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추진 중
- 엔비디아(추가, 최대 300억달러), 소프트뱅크(추가, 최대 300억달러), 아마존(신규, 200억달러 이상 가능), 마이크로소프트(추가, 100억달러 미만) 등이 투자 논의 중. 성사 시 7,300억~8,300억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스토리는 변함 없다. 시간이 좀더 걸리는 이유

Capex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 Azure 성장 속도는 높아진 기대치 소폭 하회 이유

- FY26년 2분기(12월결산) 매출을 비롯한 주요지표가 컨센을 상회하고, 마진 압박 우려와 달리 OPM이 예상치 보다 1.6ppt 높았으며, EPS YoY 24% 증가 등 놀라운 실행력을 입증했음에도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6% 하락. Capex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반면에 Azure 성장 속도가 높아진 시장 기대보다 소폭 느리기 때문
- Azure 2분기 성장은 38%(고정환율) 기록, 가이던스를 1ppt 상회했으나 시장 기대치 상단(+2~3ppt)에는 미치지 못함. 3분기 가이던스(37~38%)도 예상치(38%)를 소폭 하회
- 시장에서 제기되는 Capex 지출의 ROI 우려와 관련하여 MSFT의 입장은 1)상반기 도입된 GPU를 전량 Azure에 할당했다면 성장률은 40%를 상회했을 것이나 Capex는 Azure 뿐만 아니라 M365 Copilot, GitHub, R&D 등 스택 전반의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2)하드웨어 내용연수(6년) 대비 RPO 평균 기간(2.5년)이 짧은 것은 M365 등 단기 계약 비중 때문이며 서버 내용연수 전체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에 투자에 대한 미회수 리스크는 없다는 점

기대 요인 변함 없으나 시간이 좀더 걸리는 이유

- AI 수익화 속도와 시장 기대치 사이의 괴리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1)AI &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가장 빠른 사업자, 2)M365, GitHub, 보안 침투율 꾸준한 상승, 3) 기업의 IT 지출 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포지션 등 MSFT에 대한 기대요인에는 변함이 없음
- 현재의 Capex 투자는 AI 스택 전반에 걸쳐서 중장기 TAM 확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연적 단계라는 MSFT의 전략적 판단은 타당해 보임.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을 반영한 주가는 12M FWD PER 26배로 3년 밴드 하단(25배)에 가까운 수준.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MSFT가 가진 경쟁력 요인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중장기 업사이드 크다고 판단됨

메타(META.US): AI 광고 수익 효과 뚜렷, 마진 압박 우려 상존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AI 효과로 광고 노출 예상치 크게 상회

- 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99억 달러(+24% yoy), 순이익 22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각각 3%, 7% 상회. 4분기 서프라이즈의 핵심 요인은 AI 효과에 따른 광고 노출이 18% 증가하며, 예상치 12%를 크게 상회
- 광고 노출이 개선된 것은 AI 효과로 소비자들이 메타 SNS 플랫폼 방문과 참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AI 모델에 따른 타겟 광고의 효율성이 그 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인스타그램은 미국 내 릴스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페이스북 미국 내 비디오 시청 시간은 두 자릿수 증가, 스레드 이용시간은 전분기 대비 20% 증가
- 4분기에 광고 선별 모델인 GEM 학습에 쓰는 GPU를 2배로 늘리고, 더 긴 맥락을 이해하는 구조를 도입. 이는 페이스북 광고 클릭 3.5%, 인스타그램 전환 1% 증가로 이어짐. AI에 대한 투자가 광고 실적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1Q26 매출 가이던스 예상치 크게 상회, 지출 증가는 마진 압박 요인

- 1분기 매출 가이던스 535~565억 달러(+30% yoy)를 제시, 중간값 기준 시장 예상치를 7% 상회. 강한 광고 수요 상승과 메타 AI에 따른 광고 노출 확대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AI에 대한 공격적인 지출 확대가 우려가 되고 있으나 메타의 주력 분야인 광고 사업에서 AI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2026년 성장 스토리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요인
-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도 충분. 특히 주목하는 부문은 스마트 안경 사업. 메타의 2025년 스마트 안경 판매량은 전년대비 3배가 증가. AI의 엣지 디바이스로서 스마트 안경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 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를 시작한 메타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됨
- 작년 6월 구성된 MSL(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의 성과도 주목할 사항. 늦어도 26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 되는 메타의 신규 모델 Avocado의 성능이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면 투자 심리 개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2026년 영업마진 하락을 얼만큼 방어할 수 있는지가 리스크 요인이다. 26년 OPM에 대한 시장 컨센은 전년대비 -5%p 하락. 1) AI 모델을 통한 광고 모델 고도화로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고, 2) Reality Labs 손실을 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메타의 수익성 전략
-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상승했다. AI 광고 수익화 속도가 기대보다 빠르다는 점은 중장기 메타의 강한 상승 잠재력을 확인 시킨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6년 지출 확대에 따른 영업마진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코어위브에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

-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에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지분을 늘리며 2대 주주로 올라섬. 코어위브는 이 자금을 엔비디아 GPU 구매가 아니라 부지 확보, 전력 계약, 데이터센터 증설, R&D와 인력 확충 등에 투입해 2030년까지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일명 AI 팩토리) 구축을 앞당기는 것이 목표

알파벳(GOOGL.US): AI 오버뷰에서 AI 모드로 전환 도입

- 구글이 검색 상단의 AI 오버뷰(요약)에서 바로 후속 질문을 던져 AI 모드(대화형 검색)로 이어지도록 연결을 추가. 한 번의 요약 확인에서 끝나지 않고 같은 맥락을 유지한 채 더 깊게 파고드는 흐름을 기본 검색 경험으로 제공. AI 오버뷰의 기본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Gemini 3로 전환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답변 품질을 끌어올림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자체 칩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가속

- 2세대 자체 AI 가속기 Maia 200을 공개하고 우선 자사 데이터센터에서 내부 워크로드에 먼저 적용. Maia 200은 추론 최적화를 목표로 설계됐고, 아이오와에서 이미 가동을 시작했으며 애리조나로도 확장할 예정

메타(META.US): SNS에 AI 기능 중심 유료 구독 실험 예정

- 메타는 앞으로 몇 달 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에서 신규 프리미엄 구독을 시험하며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전용 기능과 확장된 AI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힘. 각 앱별로 서로 다른 유료 기능 묶음을 테스트하는 방식이고, 가격과 구체적인 번들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

앤스로픽(비상장):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추가 150억 달러 투자 예상

- 앤스로픽이 신규 자금 조달 목표를 기존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두 배 상향하며 기업가치 3,500억 달러 수준에서 이번 투자 라운드를 추진 중.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보임

우주/로봇

알파벳(GOOGL.US): 마이애미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 개시, 가격 지속 인하

- 웨이모가 2026년 1월 22일부터 마이애미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유료로 운영하기 시작. 초기에는 약 60제곱마일 범위에서 대기자 명단에 오른 약 1만 명을 순차 초대하는 방식. 다만 마이애미비치·사우스비치 및 일부 구간, 고속도로는 초기 서비스에서 제외됐고, 마이애미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주행은 올해 중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다만 마이애미비치·사우스비치 및 일부 구간, 고속도로는 초기 서비스에서 제외됐고, 마이애미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주행은 올해 중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스페이스X(비상장): 2026년 6월 IPO 검토설

- 스페이스X가 2026년 6월 중순 상장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머스크 생일과 행성 정렬(천문 이벤트)에 맞춘 시점 선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일론 머스크의 생일은 6월 28일이며, 6월에 있는 행성 정렬 이벤트는 수성·목성·금성이 정렬되는 6월 12일. 스페이스X는 상장을 통해 최대 500억 달러 조달과 약 1.5조 달러 밸류에이션을 목표로 함

블루오리진(비상장): 뉴글렌 3차 발사 2월 말 예정

- 블루오리진은 초대형 로켓 뉴글렌의 3번째 발사를 2026년 2월 말로 계획. AST 스페이스모바일의 위성을 저궤도(LEO)로 보내는 상업 발사로 진행될 예정. 이번 발사는 2025년 11월 2차 발사에서 회수한 1단 부스터를 재사용해 쏘는 것이 핵심 포인트로, 스페이스X처럼 해상 드론선 착륙 방식의 재사용 운용이 본격화되는 기점이 될 수 있음

우버(UBER.US): AV Labs로 로보택시 파트너에 주행 데이터 공급

- 우버는 로보택시 파트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인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Uber AV Labs를 신설. 자체 로보택시를 다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센서(라이다·레이더·카메라)를 단 차량을 도시에 투입해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웨이모, Waabi, 루시드 등 파트너에 제공

AI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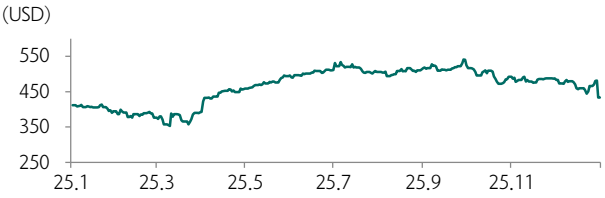
오픈AI, 최대 1,000억달러 '빅테크 연합' 초대형 투자 라운드 추진

- 오픈AI가 AI 수요 급증에 따른 컴퓨팅 비용 감당을 위해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추진 중
- 엔비디아(추가, 최대 300억달러), 소프트뱅크(추가, 최대 300억달러), 아마존(신규, 200억달러 이상 가능), 마이크로소프트(추가, 100억달러 미만) 등이 투자 논의 중. 성사 시 7,300억~8,300억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이번 투자 라운드가 성사되면 현금소진 및 오라클·MS 지출 약정 이행 우려 완화가 기대됨. 자금은 모델 학습·추론 구동 등 컴퓨팅 비용에 투입될 전망. 오픈AI는 2026~2030년 컴퓨팅 관련 비용으로 약 4,3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관련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누적 현금 소진이 약 700억달러에 달할 가능성을 얘기한 바 있음
- 다만 투자 약정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얘기 있으나 현재는 미확정 상태이고, 실제 투자액은 축소될 수 있음. 특히 아마존 투자액은 AWS 임대 확대 및 엔터프라이즈 ChatGPT 판매 제휴 등 별도 상업 거래와 연동될 가능성이 있음. 오픈AI는 2024년 11월 AWS에 7년간 380억달러 지출 언급한 바 있음. 1월 29일 로이터 보도로는 5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 또한 엔비디아의 '향후 수년간 1,000억달러 트랜치 투자' 구상은 아직 미확정이며 이번 라운드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마이크로소프트

상장 국가
미국
산업
IT
시가총액(십억달러)
3,222

최근 주가 추이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스토리는 변함 없다. 시간이 좀더 걸리는 이유

Capex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 Azure 성장 속도는 높아진 기대치 소폭 하회 이유

- FY26년 2분기(12월결산) 매출을 비롯한 주요지표가 컨센을 상회하고, 마진 압박 우려와 달리 OPM이 예상치 보다 1.6ppt 높았으며, EPS YoY 24% 증가 등 놀라운 실행력을 입증했음에도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6% 하락. Capex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반면에 Azure 성장 속도가 높아진 시장 기대보다 소폭 느리기 때문
- Azure 2분기 성장은 38%(고정환율) 기록, 가이던스를 1ppt 상회했으나 시장 기대치 상단(+2~3ppt)에는 미치지 못함. 3분기 가이던스(37~38%)도 예상치(38%)를 소폭 하회
- 시장에서 제기되는 Capex 지출의 ROI 우려와 관련하여 MSFT의 입장은 1)상반기 도입된 GPU를 전량 Azure에 할당했다면 성장률은 40%를 상회했을 것이나 Capex는 Azure 뿐만 아니라 M365 Copilot, GitHub, R&D 등 스택 전반의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2)하드웨어 내용연수(6년) 대비 RPO 평균 기간(2.5년)이 짧은 것은 M365 등 단기 계약 비중 때문이며 서버 내용연수 전체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에 투자에 대한 미회수 리스크는 없다는 점

주요 지표 예상치 상회, 전체 클라우드 매출 515억 달러(+26%)

- 2분기 매출 813억 달러(+17% yoy), EPS 4.14달러(+24%)를 기록. 전체 클라우드 매출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상회, 515억 달러(+26%)를 달성. 오픈AI 대규모 계약체결과 앤스로픽 계약 등으로 커머셜 계약은 230% 증가, RPO가 6,250억 달러(+110%)로 확대
- RPO에서 오픈AI 비중(45%)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나머지 포트폴리오도 28% 증가, 고객/산업/지역별로 다각화된 성장세를 입증. Capex는 375억 달러로 컨센(363억)을 12억 달러 상회. Capex 3분의 2가 단기 자산 비중이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
- AI 에이전트 플랫폼과 M365 Copilot, GitHub Copilot 등 AI 제품군의 주요 지표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 데이터 Fabric 플랫폼은 출시 2년 만에 매출 run-rate 2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Foundry에서 1조 토큰 이상을 처리하는 고객사 수가 250개를 상회. M365 Copilot seat 추가는 160% 이상 성장, 기록을 경신했으며 DAU는 10배 확대. GitHub Copilot 유료 구독자 수는 4.7백만(+75%)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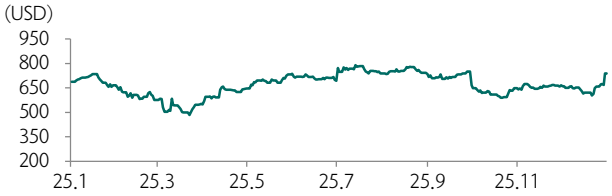
기대 요인 변함 없으나 시간이 좀더 걸리는 이유

- AI 수익화 속도와 시장 기대치 사이의 괴리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1)AI &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가장 빠른 사업자, 2)M365, GitHub, 보안 침투율 꾸준한 상승, 3) 기업의 IT 지출 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포지션 등 MSFT에 대한 기대요인에는 변함이 없음
- 현재의 Capex 투자는 AI 스택 전반에 걸쳐서 중장기 TAM 확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연적 단계라는 MSFT의 전략적 판단은 타당해 보임.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을 반영한 주가는 12M FWD PER 26배로 3년 밴드 하단(25배)에 가까운 수준.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MSFT가 가진 경쟁력 요인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중장기 업사이드 크다고 판단됨

메타

상장 국가
미국
산업
IT
시가총액(십억달러)
1,859

최근 주가 추이



메타(META.US): AI 광고 수익 효과 뚜렷, 마진 압박 우려 상존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AI 효과로 광고 노출 예상치 크게 상회

- 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99억 달러(+24% yoy), 순이익 22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각각 3%, 7% 상회. 4분기 서프라이즈의 핵심 요인은 AI 효과에 따른 광고 노출이 18% 증가하며, 예상치 12%를 크게 상회
- 광고 노출이 개선된 것은 AI 효과로 소비자들이 메타 SNS 플랫폼 방문과 참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AI 모델에 따른 타겟 광고의 효율성이 그 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인스타그램은 미국 내 릴스 시청 시간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페이스북 미국 내 비디오 시청 시간은 두 자릿수 증가, 스레드 이용시간은 전분기 대비 20% 증가
- 4분기에 광고 선별 모델인 GEM 학습에 쓰는 GPU를 2배로 늘리고, 더 긴 맥락을 이해하는 구조를 도입. 이는 페이스북 광고 클릭 3.5%, 인스타그램 전환 1% 증가로 이어짐. AI에 대한 투자가 광고 실적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26년 CAPEX 가이던스 1,150~1,350억 달러

- 26년 CAPEX 가이던스를 1,150억~1,350억 달러로 제시하며 시장 예상치 1,100억 달러를 크게 상회. 컴퓨팅 수요는 여전히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부 클라우드(구글, 코어위브, 네비우스, 오라클) 사용을 병행하더라도 올해 말 자체 추가 용량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컴퓨팅 제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CAPEX 확대와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이 있어 2026년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전망. 또한 2026년 인프라 투자를 위한 현금은 충분하나, 향후 외부 자금 조달 기회를 모색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순부채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코멘트. AI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1Q26 매출 가이던스 예상치 크게 상회, 지출 증가는 마진 압박 요인

- 1분기 매출 가이던스 535~565억 달러(+30% yoy)를 제시, 중간값 기준 시장 예상치를 7% 상회. 강한 광고 수요 상승과 메타 AI에 따른 광고 노출 확대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AI에 대한 공격적인 지출 확대가 우려가 되고 있으나 메타의 주력 분야인 광고 사업에서 AI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2026년 성장 스토리에 대한 전망을 밝히는 요인
-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도 충분. 특히 주목하는 부문은 스마트 안경 사업. 메타의 2025년 스마트 안경 판매량은 전년대비 3배가 증가. AI의 엣지 디바이스로서 스마트 안경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 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를 시작한 메타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됨
- 작년 6월 구성된 MSL(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의 성과도 주목할 사항. 늦어도 26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 되는 메타의 신규 모델 Avocado의 성능이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면 투자 심리 개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2026년 영업마진 하락을 얼만큼 방어할 수 있는지가 리스크 요인이다. 26년 OPM에 대한 시장 컨센은 전년대비 -5%p 하락. 1) AI 모델을 통한 광고 모델 고도화로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고, 2) Reality Labs 손실을 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메타의 수익성 전략
-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상승했다. AI 광고 수익화 속도가 기대보다 빠르다는 점은 중장기 메타의 강한 상승 잠재력을 확인 시킨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6년 지출 확대에 따른 영업마진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코어위브에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

-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에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지분을 늘리며 2대 주주로 올라섬. 코어위브는 이 자금을 엔비디아 GPU 구매가 아니라 부지 확보, 전력 계약, 데이터센터 증설, R&D와 인력 확충 등에 투입해 2030년까지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일명 AI 팩토리) 구축을 앞당기는 것이 목표
- 투자 단가는 주당 87.20달러로 약 2,300만 주를 매입해 기존 지분율을 기존 6.3%에서 약 12.3%까지 확대. 발표 당일 코어위브 주가는 약 5.7% 상승

알파벳(GOOGL.US): AI 오버뷰에서 AI 모드로 전환 도입

- 구글이 검색 상단의 AI 오버뷰(요약)에서 바로 후속 질문을 던져 AI 모드(대화형 검색)로 이어지도록 연결을 추가. 한 번의 요약 확인에서 끝나지 않고 같은 맥락을 유지한 채 더 깊게 파고드는 흐름을 기본 검색 경험으로 제공. AI 오버뷰의 기본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Gemini 3로 전환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답변 품질을 끌어올림
- 이번 업데이트는 최근 AI 모드에 Personal Intelligence를 붙여 Gmail·구글 포토 등 개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려는 흐름, 그리고 Gmail에도 AI 오버뷰 같은 요약형 AI 기능을 확장하는 흐름과 맞물리며, 구글이 링크 중심 검색을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재정의하려는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자체 칩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가속

- 2세대 자체 AI 가속기 Maia 200을 공개하고 우선 자사 데이터센터에서 내부 워크로드에 먼저 적용. Maia 200은 추론 최적화를 목표로 설계됐고, 아이오와에서 이미 가동을 시작했으며 애리조나로도 확장할 예정
- 마이크로소프트는 Maia200의 성능 대비 비용 개선을 강조하면서, 하드웨어 대안뿐 아니라 개발자 생태계를 묶어온 엔비디아 CUDA의 소프트웨어 우위에 맞서기 위해 오픈소스 Triton 기반 도구·SDK를 함께 제시
- 다만 외부 고객이 Azure에서 Maia 200 기반 인스턴스를 언제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아직 미정. 내부 대규모 서비스에서 먼저 검증한 뒤 외부로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

- 위스콘신주 마운트 플레전트(Mount Pleasant) 마을 이사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15동 신축 부지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과거 폭스콘 공장 유치가 좌초된 산업용 부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더 크게 확장될 예정. 이번 승인안은 두 개 캠퍼스로 구성되며 승인 문서 기준 과세가치가 130억 달러를 넘는 규모이며 완전 개발 시 전력 사용 규모는 약 2GW 수준

메타(META.US): SNS에 AI 기능 중심 유료 구독 실험 예정

- 메타는 앞으로 몇 달 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에서 신규 프리미엄 구독을 시험하며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전용 기능과 확장된 AI 기능을 유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힘. 각 앱별로 서로 다른 유료 기능 묶음을 테스트하는 방식이고, 가격과 구체적인 번들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
- 초기 후보 기능으로는 Meta AI 앱의 AI 단편 영상 생성 기능인 Vibes를 프리미엄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최근 인수한 AI 에이전트 Manus를 앱 안에 통합하면서 동시에 기업용 단독 구독으로도 판매하는 전략이 예상됨

- 코닝과 다년 계약을 맺고 2030년까지 최대 60억 달러 규모로 광섬유, 광케이블, 커넥티비티(커넥터·패치패널 등) 솔루션을 공급받기로 함. AI 데이터센터에서 GPU 서버끼리 데이터를 초저지연으로 주고받게 하는 데이터센터 내부 네트워크 확장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조달 받는 계약. 코닝은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히코리(Hickory) 케이블 공장을 중심으로 증설할 예정

앤스로픽(비상장):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추가 150억 달러 투자 예상

- 앤스로픽이 신규 자금 조달 목표를 기존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두 배 상향하며 기업가치 3,500억 달러 수준에서 이번 투자 라운드를 추진 중.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보임

우주/로봇

알파벳(GOOGL.US): 마이애미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 개시, 가격 지속 인하

- 웨이모가 2026년 1월 22일부터 마이애미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유료로 운영하기 시작. 초기에는 약 60제곱마일 범위에서 대기자 명단에 오른 약 1만 명을 순차 초대하는 방식. 다만 마이애미비치·사우스비치 및 일부 구간, 고속도로는 초기 서비스에서 제외됐고, 마이애미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주행은 올해 중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다만 마이애미비치·사우스비치 및 일부 구간, 고속도로는 초기 서비스에서 제외됐고, 마이애미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주행은 올해 중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 라이드헤일링 집계 플랫폼 Obi가 2025년 11월 27일~2026년 1월 1일 베이 에어리어에서 9만 4천 건 이상의 호출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웨이모 평균 요금은 19.69달러로 우버 17.47달러, 리프트 15.47달러 대비 여전히 비싸나, 부담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하락함. 대기 시간 역시 웨이모 5.74분, 우버 3.15분, 리프트 5.14분으로 기존 서비스를 추격하는 중

스페이스X(비상장): 2026년 6월 IPO 검토설

- 스페이스X가 2026년 6월 중순 상장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머스크 생일과 행성 정렬(천문 이벤트)에 맞춘 시점 선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일론 머스크의 생일은 6월 28일이며, 6월에 있는 행성 정렬 이벤트는 수성·목성·금성이 정렬되는 6월 12일. 스페이스X는 상장을 통해 최대 500억 달러 조달과 약 1.5조 달러 밸류에이션을 목표로 함
- 스타십 3세대(V3) 첫 비행시험 목표 시점을 2026년 3월 중순 예상. V3는 더 크고 더 강력해진 구성으로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발사를 염두에 둔 버전이며, 향후 달·화성 임무에 필수인 지구 저궤도에서의 스타십 간 도킹을 전제로 설계 됨

블루오리진(비상장): 뉴글렌 3차 발사 2월 말 예정

- 블루오리진은 초대형 로켓 뉴글렌의 3번째 발사를 2026년 2월 말로 계획. AST 스페이스모바일의 위성을 저궤도(LEO)로 보내는 상업 발사로 진행될 예정. 이번 발사는 2025년 11월 2차 발사에서 회수한 1단 부스터를 재사용해 쏘는 것이 핵심 포인트로, 스페이스X처럼 해상 드론선 착륙 방식의 재사용 운용이 본격화되는 기점이 될 수 있음
- 뉴글렌 3번째 발사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자사 달 착륙선 블루문 Mark 1(MK1)은 텍사스 NASA 존슨우주센터로 이동해 진공 챔버 시험을 받는 단계이며 발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우버(UBER.US): AV Labs로 로보택시 파트너에 주행 데이터 공급

- 우버는 로보택시 파트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인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Uber AV Labs를 신설. 자체 로보택시를 다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센서(라이다·레이더·카메라)를 단 차량을 도시에 투입해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웨이모, Waabi, 루시드 등 파트너에 제공
- 규칙 기반에서 강화학습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서 희귀한 엣지 케이스를 물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AV Labs는 그 물리적 한계를 우버의 운영 규모로 보완하겠다는 것
- 우버는 지금 당장 해당 데이터에 과금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600개 도시 중 파트너가 원하는 지역에 맞춰 표적 수집을 하며 1년 내 조직을 수백 명 규모로 키우는 것이 목표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01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01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